

# 여야, 4차 추경 통신비 놓고 격돌

### 민주 "온라인 교육으로 통신비 지출 늘어 보상 필요" 국민의힘 "여당, 초안 철회 안하면 22일 처리 못 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 했지만 통신비 지원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뚜렷해 오는 22일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가 4차 추경안 처리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통신비와 독감 백신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심사에 협력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구직자

·실직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이다. 그런 만큼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4차 추경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게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도 "야당이 통신비를 휴대전화 요금으로만 한정해 1차 함수로 해석을 한다"며 "실제로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으로 전체 통신비 가계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추진할 경우 모두가 맞고자 하는 '가수요'가 폭발해 민간 유통 백신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후과가 따른다"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자 국제 발행으로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인 만큼, 가능하면 빚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1조원 규모의 통신비 대신 무료 예방접종, 소상공인 지원 업종 확대, 특별돌봄 대상 중고등학교 추가 확대 등을 담으면 오

히려 적자국제 발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면 복지 성격의 통신비 지급을 나서서 막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마지막까지 저지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통신비와 무료접종을 주고받는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양측 모두 일단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핵심 쟁점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2일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예정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 여당이 초안을 고집한다면 22일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민주당, 내년 보선 공천 신중론

### 연말 논의키로... 신뢰회복 조치 선행할듯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낼지를 두고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에서 후보군이 가시화되고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들어간 것과 대조적인 양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지금은 코로나 19와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연말이나 돼야 당원 의사 수렴을 포함해 재보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데 벌써 선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으로 보선이 이뤄지는 만큼 일찌감치 공론화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재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해왔다. "더 급한 일을

처리하며 늦기 전에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전에는 윤리감찰단 운영, 여성·청년의 당 운영 참여 확대 등 내부 혁신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재보선 원인이 됐던 당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을 병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혁신 작업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공천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초를 전후해 재보선 논의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 일각에서는 책임론을 의식한 '무공천' 의견도 나왔지만,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기류다.

/연합뉴스

# 서욱 "軍 지휘관-부모 '휴가 자율 소통' 위축될까 우려"

### 국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秋 의혹' 갈등 계속 민주 "민원센터에 청탁하나" 국민의힘 "국방부, 추방부인가"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6일 국방부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됐다. 당사자인 추 장관 본인과 협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지난 14~15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반면 국민의힘은 난타에 나섰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부분에 대한 시각은 국민마다 다른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적인 쟁점으로 갈 사안인가"라고 따졌다.

황희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는 ARS 전화연결음이 울려 퍼졌다. 2013년부터 국방민원상담센터에 전화를 걸면 통화내용 녹음 알림이 온다며 "저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든 보좌관이든 전화를 걸어서 청탁을 할 수 있는냐. 청탁 사례가 있냐"는 질문을 연거푸 던졌다.

서 후보자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됐다"고 짧게 답하자 황 의원은 "그냥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었다. 지휘관과 부모들 간 자연스럽게 휴가, 외출 등을 소통하고, 단톡방도 만드는 상황으로 굳이 변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자문자답"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질의 시작부터 "추 장관 아들 건의 의미를 후보자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특혜 시비와 관련 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들어 유보적 답변 태도를 취하자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이네",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며 연성을 높였다. 이어 후보자의 정문회 준비가 미진하다면서 가슴팍을 향해 사대질했고, 여당 의석에서도 고성이 터져

나오며 한때 소란이 일었다.

무소속 홍영표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에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해찬 "김경수, 지켜볼 대권 주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16일 친노·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차기 대권도전 가능성과 관련, "일단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는 맞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시사인' 인터뷰에서 "(김 지사가) 동안이라 그렇지 대선 때 55세면 어리지도 않다.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별 차이도 안 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대해 "경험이 아주 풍부한 분이다. 기자도, 국회의원도 해봤고 (전남) 도지사도

지방행정을 오래 했다"며 "총리를 한 2년 하면 많은 걸 알게 되는데, 그런 게 묻어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당 지지자들 사이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다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그분이 입지전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며 "그런 건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는 논란이다. 그런 게 없으면 되나"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나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본인 생각이 깊어진 것 같다"며 "과거 여러 논란을 만들 때와 비교해보면 그렇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김원이 '국민연금 카드 자동이체시 할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16일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자동 계좌이체'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자동이체에 따른 보험료 감액을 자동 계좌이체만 한정하고 있어 자동이체 납부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 개정안은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국민연금법 제89조제4항 중 "자동 계좌이체"를 "계좌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자동이체도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으로 국민연금 납부자 간 형평성 해소는 물론, 납부 편의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은행 계좌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http://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